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루카 12,35-37)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실바노(Silvano)〉

**[제1독서]** ..... 지혜 18,6-9

**[화답송]** ..... 시편 33(32),1과 12.18-19.20과 22  
 (© 12나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 히브 11,1-2.8-19 (또는 히브 11,1-2.8-12)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복음]** ..... 루카 12,32-48 (또는 루카 12,35-4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80] 믿음으로
- 봉헌성가: [515]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 성체성가: [154] 주여 어서 오소서  
 [176] 믿음 소망 사랑
- 파견성가: [24] 내 맘의 천주여

##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2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33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쏘지도 못한다.

34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36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37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39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41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42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43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46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48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 †묵상

제1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하느님의 업적과 은혜로운 개입, 특히 하느님께서 기적으로 당신 백성을 이끄시고 충실한 이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당신 계획에 반대하는 이를 심판하신 파스카 해방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묵상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충실하심에 근거한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제2독서는 믿음을 다룹니다. 믿음은 우리 존재를 위한 탁월한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특별한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희망도 사랑도 없으며, 사랑 안에서 하느님 뜻에 대한 헌신도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사의 완성에서 하느님의 친구들, 당신의 책임자들과 협력자들을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느님께 인정을, 곧 하느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실 믿음은 기다림과 여정과 갈망이며 이 땅을 넘어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기다림에 대한 준비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양 떼”와 같지만 불쌍하고 경솔한 사람들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가난한 이들과 비천한 이들에게 하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재물을 멀리해야 하고, 그의 보물이 있는 곳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만남을 기다리며 졸지 않고 기분 좋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소 그를 천상 잔치에 초대하시어 시중을 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냥 충실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이 훈계는 모든 이, 특히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주인을 섬기고 기다리되 제멋대로 오만하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당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종들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성서의 상징

# 하느님 말씀을 상징하는 등불과 촛대

예로부터 사람들은 어둠을 무서워했다. 어둠은 악마와 귀신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밝은 빛에는 무서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집트 신전에서는 신년을 맞이하는 밤, 선달 그믐날 밤에는 등불에 불을 밝혔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등불을 삶의 상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등불을 생명의 빛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리스에서는 예언자들이 타는 불을 보고 예언하기도 했다. 또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등불에 마술적 장식과 표시를 부착하기도 했다. 불을 밝히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등불은 보통 촛대 위에 올려진다.



서양에서는 밀랍이 이집트와 그리스에 일찍부터 알려져 B.C. 3 세기에 이미 초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촛대도 그리스 시대 말기에 발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등불과 촛대는 사람들 생활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17~18세기부터 궁정 등에서는 은으로 만든 촛대를 사용하였으나 도자기와 청동 촛대도 제작되어 화려한 실내장식 역할도 하였다. 로마네스크 시대 열두 개의 작은 등불대를 가진 커다랗고 둥근 상들리에에는 빛을 밝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암시했다.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등불은 아주 흔한 것이었다.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흙으로 등을 만들었으나 부유한 사람들은 구리나 기타 여러가지 금속으로 등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등불을 켜 놓았다. 왜냐하면 불을 밝혀놓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가족들 먹을 것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집 안의 등을 끄지 않았다. 등이 꺼진 집은 버려진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등불은 가정의 품위와 삶을 상징하기도 했다.

성서에서는 하느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비유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시편 119,105 참조).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불은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특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 등불과 등불용 기름의 예회는(마태 25,1-13 참조) 하느님 방문에 대비하여 항상 마음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권고이다. 또한 등불은 그리스도교인들의 모범적 삶을 상징하기도 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놓아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져서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루가 8,16 참조).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고,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비유했다. 모든 빛은 자신을 태워서 주변 세상을 밝힌다. 따라서 등불과 촛대는 빛과 밝음,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 팔을 가진 촛대는 일곱 교회로서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가톨릭 성당에는 성체등이 항상 켜져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 현존과 영원함을 표시한다. 성체가 모셔진 감실 앞에서 밤낮으로 켜져 있는 성체등은 그리스도의 항구한 사랑을 상징하며, 신자들에게 성체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흠숭과 사랑을 일깨워 준다.

특히 성 토요일 부활 전야제에서 특별한 의식과 함께 축성된 부활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부활초는 부활시기 동안 독서대 옆에 마련된 촛대에 세워져 미사와 성무일도 등 전례가 거행될 때 켜진다. 등불과 촛대는 생활의 도구로도 중요하지만 성서에 나오는 풍요로운 신앙의 상징이기도하다.

〈허영엽 신부, 성서의 풍속, 평화신문〉

성화 해설

이 작품은 세 폭의 제단화처럼 구성되어 있다. 왼쪽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불을 밝히고, 가운데 있는 신랑과 일행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오른쪽의 미련한 처녀들은 빈 등잔을 들고 당황해 한다. 신랑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슬기로운 처녀는 참된 제자를, 미련한 처녀는 거짓된 제자를 의미한다.

〈정웅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실바노(Silvano)



~ CCD ~  
**SUMMER CAMP**  
 8/2 - 8/4 PINE CREEK RETREAT CENTE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본당 주일 학교 CCD 캠프(4-8학년)가 지난 8월 2일(금)부터 8월 4일(일)까지 Pine Creek Retreat Center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 주제는 루카 복음 12장 34절 말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 Luke 12:34)로, 학생들은 여러 액티비티를 통해 '미사와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미사와 성당 행사에 더 열심히 참여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CCD 캠프를 위해 봉사해 주신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님, 청년 봉사자들, CCD 교사진, 소사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캠프를 찾아 주신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신부님과 사도회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이태현 스테파노, 캠프 디렉터



19<sup>TH</sup>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11, 2019

**What is Your Treasure?**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talks about being ready for when He comes again. He reminds us that having nice things here on earth does not help us get into Heaven.

Jesus said that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He means that the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you show what it is that you love.

If money or food or nice clothe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your life, then it shows that you love them more than you should. But if being kind and helpful to others and loving God are more important to you than having nice things, then you have a good treasure stored up for Heaven.

When we die everything we have will be gone. All that we will have to show to Jesus are the things that are in our hearts. If you only loved having nice stuff then the treasure box of your heart will be empty.



If you loved God and others and were faithful to God, then your treasure will still be full. So fill your heart with treasure that will last forever!

<<https://www.thekidsbulletin.com>>

**ANNOUNCEMENT**

**Registration Service for SPC Sunday School**

- **When:** 8/4-8/25(Sundays), 10am-11:20am, 12:40pm-1:30pm
- **Where:** Hasang Bldg. Office
- **Registration Fee:** \$80/student
- **Question?**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Feast | August 15  
 Holy Day of Obligation

This Thursday, August 15<sup>th</sup>, is a special feast day of our Lady. The Assumption is the day we celebrate the end of Mary's life on Earth and beginning of her life with Jesus in Heaven.

After Jesus went into Heaven and the Holy Spirit came, Our Lady helped the new Christians and prayed for them. They loved and respected her and looked after her for many years. Finally, it was time for her to go to God in Heaven.

When we come to the end of our lives, we die and are buried in the ground. But God would not let that happen to His holy Mother. When her life was over, she went into Heaven, body and soul! We say that Mary was assumed, or taken up, into Heaven.



The painting depicts the Patroness of the Cathedral, the Assumption of Our Lady into Heaven.

The West Saucer dome inside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Baltimore, MD)

Holy Mass for the Assumption of Mary :  
**Thursday, August 15, 6 am / 8 pm**



“마리아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상기시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에, 하느님의 충실하고 거룩한 백성들은 기쁨을 다해 성모님께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이는 전례와 여러 가지 신심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로써 성모님께서 하셨던 예언이 실현됩니다.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루카 1,48). 주님께서서는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에 들어 올려진 것은, 예수님과와의 특별한 일치를 위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부여된 신성한 특권입니다. 이러한 일치는 예수님 탄생 예고에서부터 당신 아드님의 신비에 대한 특별한 참여를 통해 성모님의 전 생애에 걸쳐 성숙된 육체적이고 영적인 일치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항상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삶은 당대의 평범한 여인들의 삶과 같았습니다. 기도하고, 가족과 집을 돌보고, 회당에 다니고, (...) 그러나 성모님 일상의 모든 행동들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온전한 일치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일치는, 사랑과 연민과 마음의 고통 안에서, 그리고 골고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성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처럼 썩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이 신비를 묵상하라고 초대합니다. 이

신비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육신과 영혼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으로부터 받으신 몸과 함께 부활하셨으며, 변모되신 인성으로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 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몸으로, 하지만 변모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 가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이신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이 무엇인지를 확증해줍니다. 이미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이 죽음 이후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을 멸시했으며,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인간의 육체가 하늘나라의 행복 가운데서 영혼과 일치하도록 하느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변모된 육체는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계시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인 “육신의 부활” 입니다.

성모님 승천의 놀라운 현실은 인간의 단일성을 드러내고 확증하며,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모성애적 전구로, 모든 성인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날까지, 실천하는 희망 안에서 우리 일상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성모님께 간구합니다. - 2018년 성모 승천 대축일에 <<http://www.vaticannews.va>>



## ○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희생자들을 위한 교황의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 텍사스 주 엘패소를 비롯해 오하이오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총기 학살 사건에서 비무장 상태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애도를 표했다.

“저는 이 며칠 동안 비무장 상태의 사람들을 총기로 난사하여 미국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오하이오 주를 피로 물들인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영적으로 가까이 있겠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저의 기도에 함께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8월 4일 연중 제18주일 삼종기도를 바친 후 이같이 말하고,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마리아에게 위탁하며 애도를 표했다.



### 미국 주교단, “책임 있는 총기법” 호소

오하이오 주의 총기난사가 발생한 뒤 미국 주교회의(USCCB) 의장 다니엘 디나르도(Daniel DiNardo) 추기경과 프랭크 드웨인(Frank Dewane) 주교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일련의 총기난사 사건이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우리는 총기난사 사건이 외딴 예외라고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정의롭게 직면해야 하는, 생명을 거스르는 전염병입니다.” 미국 주교단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총기법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치유를 위한 희생과 기도의 방식으로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또 “가톨릭 신자들이 국가정책과 국민문화에 필요한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이도록 격려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주교회의는 책임 있는 총기법을 옹호하고 폭력의 근본원인을 다루는 자원을 늘리기 위해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주교단은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vaticannews.va>>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8월 15일(목) 오전 6시, 오후 8시  
성모 승천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2 단체장 회의**

• 일시 : 8월 11일(일) 오전 11:30(B-3,4)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8월 11일(일) 오후 1시(B-3,4)

**4 베드로 월례회의**

• 일시 : 8월 11일(일) 오후 1시(A-1,2)

**5 제81차 예비자 모집**

• 접수 : 매 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사무실 (703)968-3010  
원철희 토마스 선교부장 (703)203-0332

**6 제80차 예비자 영세 일정, 종합교리 및 참고**

• 종합교리 : 8월 20일(화), 8월 21일(수) 오후 8시(하상관)  
• 참고 : 8월 22일(목) 오후 8시(하상관)  
• 영세 및 견진식 : 8월 23일(금) 오후 7:30 미사 중  
• 환영식 : 8월 25일(일) 오전 11:30(B-1,2)  
• 문의 : 원철희 토마스 (703)203-0332

**7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1:30(B-3,4)

**8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1:30(A-1,2,3,4)

**9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10 정신건강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8월 25일(일) 오전 11:30(A-1,2)  
• 내용 : "마음의 힘 키우기"  
• 강사 : 권미경 모니카 의학박사  
(HopeSprings 아동 가족 상담소장)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1 2019 - 2020년도 주일학교 등록**

• 신청 : 8월 25일(일)까지 10시 미사 후, 하상관 로비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2 2019 - 2020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 학사 일정 : 2019년 9월 7일 - 2020년 5월 9일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시)  
• 입학 대상 : 유치부(K) - 12학년  
• 모집 인원 : 선착순 180명  
• 학비 : 첫째 자녀 \$490, 둘째 자녀 \$450, 셋째 자녀 \$400  
• 등록 : 하상관(8월 25일까지 / 10시 미사 후)  
우편접수 가능(성당 웹사이트 참조)  
• 문의 : 교무실 (703)968-3070  
hasangkoreanschoolva@gmail.com

**13 빠뜨리치안회 첫 모임**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내 믿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빠뜨리치안회는  
신자로서 갖는 고민들을 나누며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주임신부님과 함께 하는 빠뜨리치안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8월 25일(일) 오후 2시, 친교실  
• 주제 : 목주기도  
• 대상 : 관심 있는 모든 교우분들  
• 문의 : 김국 스테파노 (703)304-2129

**14 하상 성인학교 2019년 가을학기 등록**

• 교육 기간 : 9월 10일(화) - 12월 6일(금)  
• 등록 : 8월 11일(일) - 9월 8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주보대에 비치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상 성인학교 점심 봉사자 모집 : 가을학기 동안 금요일  
점심 봉사자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울리아나 교장 (703)217-2775

**15 Retreat for Adult Children of Divorce (알링턴 교구 주최)**

• 일시 : 8월 30일(금) 오후 6시 - 9월 1일(일) 오후 1:30  
(Fee : \$350)  
• 장소 : San Damiano Spiritual Life Center  
(125 Old Kitchen Rd. White Post, VA)  
• 등록 : www.arlingtondiocese.org/healingretreat

사도 임원회의 : 8월 16일(금)에는 없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11일(일)	연중 제19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단체장 회의(오전 11:40, B-3,4), 베드로회(오후 1시, A-1,2),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Burke 1반 모임(오전 11:30, 나눔터)
12일(월)	연중 제19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13일(화)	연중 제19주간	평일미사 (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경 기도회(오후 8시)
14일(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15일(목)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오전 6시, 오후 8시, 성당)
16일(금)	연중 제19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사도 임원회의 없음
17일(토)	연중 제19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8월 18일(일)	연중 제20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5), 주일학교 임원회의(오후 1시)

2차 헌금

이번 주일은 "알링턴 교구 바니카 미션(도미니칸 공화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9주간: 시편 124-132, 2 코린 9-10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15일(목) 오후 5:00-6:00  
8월 16일(금) 저녁 8:00-9:00  
8월 18일(일) 오전 6:00-7:00

Cox Ch. 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16): 이라고 산을 넘어 폰페라다까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8월 4일(연중 제18주일)

주일헌금	\$8,174.00
교무금	\$8,130.00
교무금(크레딧카드)	\$5,800.00
특별헌금	\$220.00
2차헌금	\$0.00
합계	\$22,32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분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버라),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오셉), 박상연(리파엘), 정중희(발버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오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지(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젠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지(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나),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필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윤벽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베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호천),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경태 요셉 703-785-4494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아리랑시니어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HOP 건너편) 703-543-6008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에스터 703-231-6030 홈케어 703-819-0360 데이케어 703-819-0360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스킨 스튜디오</b>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 (안젤라) 703-507-005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알렉산드리아 병원 근처 703-679-8959	<b>HYN 부동산</b>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b>Commercial 김준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글로벌 가정의학과</b> 방문진료, 무보험 환영 윤명희 (헬레나), FNP 703-935-9226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대학 진학 컨설팅</b> 김도현(요셉) FCPS 교사 / 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703-638-9998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타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메디케어, 생명보험 메디케이드 신청 도와드립니다.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Well Skin Care</b> 오픈기념 특별 이벤트 애난데일, 한국일보 맞은편 703-627-7123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